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 기반 이용자 연구

A Study of User Behaviors Based on Data from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곽지영 (Jiyoung Kwak)*

초 록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년 법마루의 소장 도서는 212,608권이었으며, 법률서가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일반서가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제별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가 5.85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고 법학 분야가 0.23으로 가장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상호대차의 경우, KERIS 가입 회원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제법 분야, 민법 분야, 사법소송절차 분야 순으로 대출 비율이 높았다. 다만, 법학계인 KERIS 가입 회원기관이 실무계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해 더 다양한 주제 분야의 법률서를 대출하고 있었다. 법률정보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법마루 대국민 대출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열람 공간의 이용이 높았고, 대출 역시 일반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마루 대출 서비스 홍보 강화 및 개인화 서비스 제공, 도서대출 규정 정비 온라인서비스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circulation data to identify user lending patterns and proposed a plan to reflect the analysis results in future user services. In 2022, Beopmaru's collection of books was 212,608, with law books accounting for 73%. However, general books accounted for 83% of actual circulation. Looking at the usage coefficient by topic, the literature field was the most actively used at 5.85, and the law field was the least used at 0.23. In the case of interlibrary loan, both KERIS member institution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d the highest loan ratios in the legal field, civil law field, and judicial litigation procedure field, in that order. However, member institutions affiliated with KERIS, a legal academic community, were lending law books on a wider range of subject areas than the Korean Bar Association, a practical organization. To improv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the Beopmaru public service was implemented, but in reality, the use of reading space was high, and the proportion of general books loaned was much higher. In order to improve this, it seem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motion of Beopmaru loan services,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improve book lending regulations, strengthen online servic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키워드: 법원도서관, 법마루(본관 열람실), 사법정보서비스, 이용행태, 도서대출데이터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Beopmaru (main reading room), legal information service, user behaviors, circulation data

* 법원도서관 사서(kkwak@scourt.go.kr)

- 논문접수일자: 2023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9월 6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40(3), 143-162,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3.14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은 데이터사이언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학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장서 통계, 이용자 통계, 대출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단편적인 통계 데이터로서만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는 2009년부터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을 통해 관종별 통계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나루(<https://www.data4library.kr>)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는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로 삼을 때 그 가치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보고적 성격으로만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활용 지표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도서관도 1989년 9월 1일 설립 이후 도서관 관련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왔으나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법원도서관은 2018년 12월 12일 일산 이전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2년 2월 14일부터는 대국민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도서관에서 수집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도서대출 데이터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양지안(2017)은 대출 빈도가 특정 자료에 대한 특정 이용자층의 선호도를 수치화하여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사법부 산하의 연방법원도서관이나 주(州)법원도서관과는 별개로 California County Public Law Libraries(<https://www.mylawlibrary.org/index.htm>)와 같이 일반 국민의 법률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법률도서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 법률도서관이 없으므로 법원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시행은 기존의 내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벗어나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제2조 기본이념(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및 이용)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위한 유일한 법학 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문헌정보학계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및 대출 현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장서 이용과 관련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나 서비스 정책 확립 등 법원도서관 법마루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도서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크게

장서평가에 관한 연구와 이용 현황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서평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선애(2013)는 장서 이용행태에 기반을 둔 장서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A대학도서관의 1년간 대출 기록을 분석하였다. 주제별 대출 기록을 분석하면 이용이 많은 주제와 적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장서수집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출판 경과 연수에 따른 대출 기록 분석을 통해 자료의 최신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자료 이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분야를 파악하여 자료의 폐기, 제적, 이관 등의 장서관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장서이용평가는 수장고 부족이나 열람 공간 부족과 같은 도서관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오지은과 정동열(2015)은 국내 도서관 장서 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기 위한 장서평가 지표 사례 연구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광진정보도서관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용중심적 평가를 위한 장서평가지표 예시로 연도별 구입도서 주제별 이용, 사서 추천도서 이용, 연도별 비대출도서 비율, 대출자 거주지별 도서관 이용 분석을 들었다. 자관의 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서평가를 하면 개념적인 장서정책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양지안(2017)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K대학도서관의 대출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0%의 핵심 도서가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20/50 패턴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도서의 대출 수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 건수를 이용하여 주제별 도서 반감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어

학 분야의 반감기가 가장 길고, 공학과 의학 분야가 반감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파악한 핵심 장서와 도서 반감기는 장서 구성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주연과 김성희(2019)는 소장자료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대학 법학도서관의 1년간 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별, 언어별, 출판연도별 대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의 도서관 소장 유무를 파악하였으며, 연구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논문 인용 자료의 도서관 소장 유무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DDC 분류기호 346으로 전개되는 사법 분야와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 최근 10년간 출판된 자료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 현황 및 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이다. 이용 현황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다시 도서대출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여 이용자 집단에 따른 이용행태나 주제별 이용도를 조사하는 연구와 도서대출 데이터를 기초로 도서추천 서비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이용행태나 주제별 이용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유경중, 박일중(2008)은 Bonn(1974)의 이용 요인을 산출하여 C대학 도서관의 1년간 주제별 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분에 따라 많이 이용하는 주제 분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생은 동양문학, 서양문학, 대학원생은 교육학, 어학, 교수는 문학일반, 직원은 한국문학에서 높은 이용 요인을 보였다.

허선과 정연경(2014)은 강서구와 양천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대출 기록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도서관은 인구밀집도, 나이별 인구 비율, 교육 수준 등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대출 자료의 주제나 나이대별 대출 이용행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는 향후 도서관 표본을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 패턴을 지역적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드러난 이용 패턴은 도서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태영, 백지연과 오효정(2018)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자 로그를 활용하여 이용자 및 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립세종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은 부모와 자녀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10대와 40대였으며, 방학 기간에 이용 및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60대 이상 노인 연령층과 50대 남성 이용자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서비스를 연령별, 성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지영(2021)은 11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정보요구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각 도서관에서 전체 대출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장서를 파악한 후, 각 장서의 주제 정보와 속성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이용 연령이 이용목적, 선호도서 장르 및 주제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대출 데이터를 토대로 도서 추천 서비스 등을 구현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성훈, 노윤주, 김미령(2021)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S 치안행정 전문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대출한 100명의 이

용자를 대상으로 Aprior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서 추천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내러티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분야 경험, 정보문제 해결, 실리성, 동기유발, 내용, 쉬운 이해, 관심 주제 연관성이 도서 추천 서비스 만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홍연경 외(2021)는 2019년 성균관대학교 학부생들의 학술정보관 대출 기록을 기반으로 3가지 방식으로 대학도서관 도서 추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행렬 분해를 이용한 추천 방식을 SVD 방식과 SGD 방식 2가지로 구현하였다. SGD 방식이 베스트셀러 위주로 추천하는 SVD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주었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오히려 SVD 방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방식은 사용자와 유사한 그룹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SVD 방식과 SGD 방식의 사이에 있었다.

임정훈, 조창제, 김종현(2022)은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의 대출데이터를 기초로 Aprior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한 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신속하게 나의 관심 주제나 또래 집단의 관심 주제가 반영된 책이 추천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중복 추천이나 새로운 관심 주제 반영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도서대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 장서평가 및 이용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도서대출 데이터를 도서 추천 시스템 등 개인화 서비스에 이용하려는 연구들도 이루어

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도서관의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법률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법마루 장서 수집이나 운영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법원도서관 법마루의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법원도서관 법마루 환경

법원도서관은 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제22조에 근거하여 1989년 9월 1일 개관하였다. 법원도서관은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967호, 제2조 2항에 따라 각급법원 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지도·지원한다.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실은 총 32군데로,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특허), 지방법원(서울행정,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춘천,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 사무국 설치 지원(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천안, 대구가정, 부산동부, 부산서부, 순천)에 도서관실이 있다(법원도서관, 2019, 77).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마루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도서관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대법원 건물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사법연수원 청사로 2018년 8월 24일 이전하였으며, 12월 11일 이전 개관식을 열고 일산의 본관 열람실을 '법마루'로 명칭 하였다. 법마루는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967호, 제2조 1항에 따라 재판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는 고유의 기능과 더불어 법률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주중 개방만 실시하다가 2019년 5월 4일부터 주말 개방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대국민 개방 이후 소장도서 대출 요구 증대에 따라 2022년 2월 14일부터 대국민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전하기 전에는 법원도서관 열람 등 이용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 내규 2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검사 및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교수 등 외에는 법원도서관장 또는 각급 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제한적으로 법원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였다. 법원도서관 청사 이전 후에도 대법원열람실 공간은 대법원 청사 내에 그대로 있으며, 법관 및 직원 등 내부 이용자를 위한 재판업무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1 법원도서관 법마루 시설 현황

법마루는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 현황은 <표 1>과 같다.

법마루 1층은 국내일반자료실로 일반주제 잡지, 교양도서와 이용률이 높은 법령·판례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도서 확대기, 청각장애인용 소리증폭청취기 등을 갖춘 장애인열람실이 있다. 법마루 2층은 국내법률자료실로 국내 법률도서, 정기간행물,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등이 비치되어

〈표 1〉 법마루 시설 현황

시설			열람 시간	휴관일
법마루 1층	국내일반자료실	장애인열람실, 디지털검색대	평일: 09:00~18:00 주말: 9:30~17:30	매월 마지막주 월, 법정공휴일
법마루 2층	국내법률자료실	조사연구실, 귀중본서고, 디지털검색대		
법마루 3층	국외법률자료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집중열람실, 세미나실, 디지털검색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ourt.go.kr/introduction/intro/state/facility> [cited 2023. 8. 22.]

있다. 그리고 공무원, 법률종사자,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위한 개인 연구 공간인 조사연구실이 있다. 조사연구실은 3개월간 장기로 이용할 수 있다. 법마루 3층은 국외법률자료실로 국외 법률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집중열람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들을 위한 열람 공간으로 신청 당일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세미나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4인 이상이 모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 예약을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검색대는 층마다 있는데, 예약을 하면 1회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 협정기관 소장 원문 자료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법마루 3층에는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있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대법원열람실과 함께 대법원에 존치되었다가 2021년 10월 1일 법마루로 이전하였다.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내규 제346호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후 이용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1일 최대 2회, 1주 최대 4회만 이용할 수 있다.

2.2 법원도서관 법마루 장서 현황

2022년 법원도서관의 장서구입비는 약 21.6억 원으로,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하였다. 구입한 도서는 법원도서관뿐 아니라 각급법원 도서실까지 배부되었다. 공동구입 도서와 별개로 법마루는 법원도서관 이전 후 '도서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9~10억원 정도의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고 있었다. 국내서의 경우 법률 도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 등 법률 인접 분야의 도서도 재판 참고 자료용으로 구입하고 있었다. 외국서의 경우 동양서는 주로 일본 도서였으며, 중국이나 대만 도서도 구입하였다. 그리고 서양서는 영미서, 유럽서(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률 도서를 구입하고 있었다.

2022년 법원도서관 법마루 장서 현황은 〈표 2〉와 같다. 법마루는 국내서 109,085권, 동양서 53,523권, 서양서 50,000권 등 총 212,608권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국내서의 비중이 51%였고 외국서는 동양서와 서양서가 균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2년 법원도서관 분류별 상세 장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2022년 법원도서관 법마루 장서 현황

(단위: 권, %)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합계
권수	109,085	53,523	50,000	212,608
비율	51	25	24	100

출처: 법원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CLIMS) (2011). 도서 통계.

〈표 3〉 2022년 법원도서관 법마루 장서 상세 현황

(단위: 권,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법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합계
	000	100	200	300	340	400	500	600	700	800	900	
국내서	3,268	3,301	671	16,515	58,513	762	1,169	6,785	1,952	12,177	3,972	109,085
동양서	246	283	69	1,835	50,338	86	16	379	21	23	227	53,523
서양서	329	109	79	620	46,498	39	15	147	1,563	117	484	50,000
합계	3,843	3,693	819	18,970	155,349	887	1,200	7,311	3,536	12,317	4,683	212,608
비율	2	2	0	9	73	0	1	3	2	6	2	100

출처: 법원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CLIMS) (2011). 도서 통계.

법원도서관은 DDC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340 법학 분야는 법원도서관만의 자체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법학 분야를 제외하고 법마루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서의 경우, 사회과학(18,970권, 9%)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문학(12,317권, 6%) 분야였다. 그리고 종교(819권, 0%) 분야와 언어(887권, 0%) 분야의 장서 비중이 가장 낮았다.

법률서 장서 상세 현황은 〈표 4〉와 같다. 법마루는 342 제법(31,830권, 20%) 분야 장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341 법제사(1,463권, 1%) 분야 장서를 가장 적게 소장하고 있었다.

2.3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및 대출 정책

법마루 이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도서관 법마루 이용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지침, 제227호, 법마루 소장 도서 권외 대출에 관한 지침, 제243

호, 등 법원도서관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법마루의 이용 대상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만 16세 이상인 자이다. 주중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주말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법마루의 대출 정책은 이용자에 따라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대출 정책은 〈표 5〉와 같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는 일반서 및 국내 법률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 권수는 3책이다. 대출 가능일은 10일이며, 한 차례만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를 연체하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일반 이용자는 법관과 직원 등 내부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를 뜻하며,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기본적으로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기관 상호대차로 신청할 때 한하여 국내 법률서 대출 기일이 10일(1회 연장할 경우 20일) 더 길다. 법학전문대학원 교

〈표 4〉 2022년 법원도서관 법률서 분류별 장서 상세 현황

(단위: 권)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비율	
340	법률총류	10,058	6,498	6,392	22,948	15
341	법제사	490	537	436	1,463	1
342	제법	11,104	11,072	9,654	31,830	20
343	국제법	2,344	2,153	4,909	9,406	6
344	헌법	3,459	2,214	3,358	9,031	6
344.8	행정법	2,681	2,399	1,650	6,730	4
345	형법	4,930	4,228	3,330	12,488	8
346	상법	3,139	4,097	3,241	10,477	7
347	사법소송절차	3,909	1,716	1,502	7,127	5
347.2	민사소송법	4,417	4,028	3,177	11,622	7
347.6	형사소송법	2,209	2,115	1,427	5,751	4
348	민법	6,690	8,819	6,530	22,039	14
349	관례총서	3,083	462	892	4,437	3
계	58,513	50,338	46,498	155,349	100	

출처: 법원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CLIMS) (2011). 도서 통계

〈표 5〉 법마루 대출 정책

구분	1층 일반(교양)도서	2층 국내 법률서	3층 외국 법률서	비고
법관 및 직원	3권/10일(1회 연장)			
일반 이용자	3권/10일(1회 연장)		×	
KERIS (기관 상호대차)	×	3권/15일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	3권/20일 (1회 연장)	×	일반 이용자 이용가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	×	×	△ (구입희망도서에 한해 대출)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ourt.go.kr/introduction/use/way> [cited 2023. 8. 22.]

수나 학생의 경우, 구입희망 도서에 한해 3층 외국 법률서 대출이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2020년부터 기관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KERIS 가입 회원기관에 법마루 소장 도서 중 국내 법률 및 국외 법률 단행본을 대상으로 상호대차 및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2월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에게 법마루 소장 도서 중 국내 법률도서를 대상으로 대

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 대출 현황 분석

본 연구는 법마루 이용자 도서대출 데이터를 통해 대출 주제 분야 등 대출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CLIMS)을 통해 대

국민 대출을 시작한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대출 기한을 설정한 후, 법마루 대국민 대출 모듈에서 대출 데이터를 반출하였다. 반출한 데이터는 Microsoft EXCEL 2021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총 5,601건이었다.

3.1 주제 분석

2022년 법마루 대출도서를 분석해보면, <표 6>과 같이 일반서의 대출 비율이 83%로 법률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출된 도서의 세부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문학 분야의 대출이 34%(1,899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법학 분야 17%(926권), 사회과학 분야 14%(774권) 순이었다. 가장 적게 대출된 분야는 종교(50권) 및 순수과학(56권) 분야로 각각 1%였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를 분석해보면 <표 8>과 같다. 단, 대출 빈도수는 불특정한 다수의 이용자가 대출한 횟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동일한 도서

를 계속 연장 대출하여 대출 횟수만 늘린 경우는 제외하였다. 법마루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는 16번 대출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1권과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였다. 상위 5위까지에 포함된 12권의 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DDC 800 문학 분야 7권, 300 사회과학 분야 3권, 700 예술 분야와 900 역사 분야 각각 1권이였다. 앞서 일반서의 대출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만큼 상위 대출 빈도 5위까지를 살펴봐도 법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장서 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대출 권수만 비교하면 절댓값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Bonn(1974)이 제안한 이용계수(Use Factor)를 산출해보았다. Bonn의 이용계수는 장서 비율을 고려한 이용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용계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Bonn의 이용계수} = [(\text{특정 주제의 대출 빈도} / \text{도서관의 총 대출 빈도}) * 100] / [(\text{특정 주제의 장서 수} / \text{도서관의 총 장서 수}) * 100]$$

<표 6> 2022년 법마루 일반서 및 법률서 대출도서 수

(단위: 권, %)

구분	일반서	국내 법률서	합계
권수	4,675	926	5,601
비율	83	17	100

<표 7> 대출도서 주제 분석

(단위: 권,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법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합계
권수	241	380	50	774	926	192	56	121	606	1,899	356	5,601
비율	4	7	1	14	17	3	1	2	11	34	6	100

〈표 8〉 상위 대출빈도 분석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청구기호	대출빈도
1	파친코	이민진	문학사상	2018	813.6 이39ㄷ v.1	16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2020	895.735 정53ㅈ	16
2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옆의자	2021	895.735 김952ㄴ	13
	유럽도시기행. 1: Athenae, Roma, Istanbul, Paris	유시민	생각의길	2019	914.04 유59ㅇ v.1	13
3	차트의 기술: 한 권으로 끝내는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김정환	이레미디어	2013	332.6322 김73ㄷ	12
	달려구트 꿈 백화점: 단골손님을 찾습니다. 2	이미예	팩토리나인	2021	895.735 이393ㄷ v.2	12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기요사키, 로버트	민음인	2018	332.024 기66ㄴ	12
4	아몬드	손원평	창비	2017	895.735 손67ㅇ	8
	내가 사랑한 공간들: 삶의 안목을 높여주는 공간 큐레이션 20	윤광준	을유문화사	2019	700.1 윤16ㄴ	8
	부의 추월차선: 부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드마코, 엠제이	토티	2013	332.024 드31ㄴ	8
5	피프티 피플	정세랑	창비	2016	895.735 정53ㄷ	7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헤이그, 매트	인플루엔셜	2021	823.92 헤691ㄱ	7

〈표 9〉 주제별 이용계수

(단위: 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법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합계
대출권수	241	380	50	774	926	192	56	121	606	1,899	356	5,601
장서수	3,843	3,693	819	18,970	155,349	3,536	887	1,200	7,311	12,317	4,683	212,608
이용계수	2.38	3.91	2.32	1.55	0.23	2.06	2.40	3.83	3.15	5.85	2.89	

법마루 장서의 이용계수는 〈표 9〉와 같다. 이용계수가 1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장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주제별 이용계수가 가장 높은 주제 분야는 문학 분야(5.85)였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1.55)였다. 이용계수 자체로 보면 법학 분야가 0.23으로 가장 낮지만, 법원도서관이 법학 주제 전문도서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주제 분야의 이용계수와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도서관은 법학 분야의 장서가 전체 장

서의 73%를 차지할 만큼 장서 비중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법학 분야는 별도로 분석하여 세부 주제 분야의 정보 이용 요구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서의 세부 주제별 이용계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가장 많이 대출된 세부 주제 분야는 민법(246권), 법률총류(140권), 형법(112권) 순이었으나, 장서수를 고려한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사법소송절차(2.42), 민법(1.87), 형사소송법(1.66) 순으로

〈표 10〉 법률서 이용계수

(단위: 권)

구분	장서 수	대출 수	이용계수	
340	법률종류	22,948	140	1.02
341	법제사	1,463	1	0.11
342	제법	31,830	103	0.54
343	국제법	9,406	26	0.46
344	헌법	9,031	23	0.43
344.8	행정법	6,730	25	0.62
345	형법	12,488	112	1.50
346	상법	10,477	29	0.46
347	사법소송절차	7,127	103	2.42
347.2	민사소송법	11,622	57	0.82
347.6	형사소송법	5,751	57	1.66
348	민법	22,039	246	1.87
349	판례총서	4,437	4	0.15
계		155,349	926	

이용계수가 높아 서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출이 가장 낮은 주제 분야는 법제사 1권으로 이용계수도 가장 낮은 0.11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절차법상 실제 소송 진행과 관련된 도서 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시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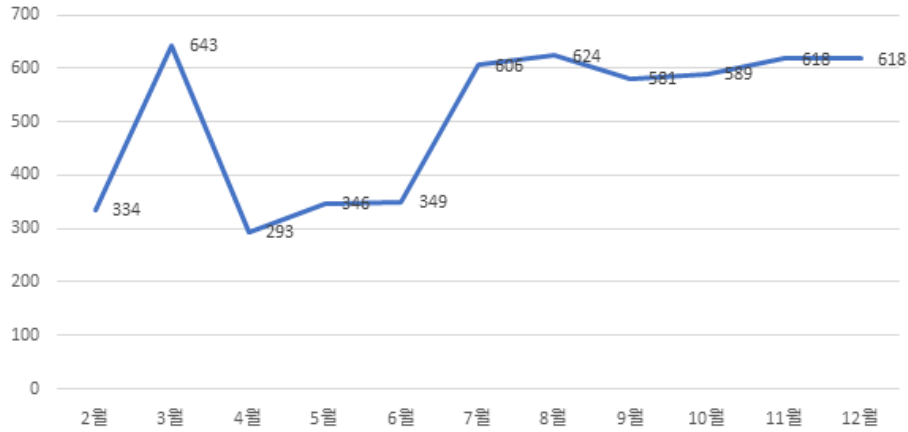
월별 대출 도서 수를 살펴보면 3월을 제외하고는 2월에서 6월까지 300권 내외로 대출이 되었으며, 7월부터 600건 내외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정 월에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월별 대출 현황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요일별 대출도서 수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화요일이 914권(16%)으로 가장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월요일이 657권(12%)으로 가장 대출이 적게 이루어졌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법마루의 정기 휴관일인 것이 월요일

이 적게 대출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4% 내외로 전체적으로 요일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3.3 상호대차 서비스 분석

법마루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도서를 대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대차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해보았다. 법원도서관은 KERIS 가입 회원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에게 법마루 법률도서를 관외대출 해주고 있다. 법원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CLIMS)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대출 기한을 설정한 후, 법마루 대출 모듈에서 기관 ID 상호대차(riss), 대한변협으로 대출한 데이터를 반출하였다. 반출한 데이터는 Microsoft EXCEL 2021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총 334건이었다. 구체적인 상호대차 대출 현황은 〈표 12〉와 같다.



〈그림 1〉 월별 대출 현황

〈표 11〉 요일별 대출도서 수

(단위: 권,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권수	657	913	821	742	865	773	830	5,601
비율	12	16	15	13	15	14	15	100

〈표 12〉 상호대차 대출 현황

(단위: 권)

구분		KERIS 가입 회원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대출 수	비율	이용계수	대출 수	비율	이용계수
300	사회과학	5	2	0.20	0	0	0.00
340	법률종류	8	4	0.27	10	9	0.63
341	법제사	1	0	0.53	0	0	0.00
342	제법	54	24	1.31	30	28	1.37
343	국제법	14	6	1.15	6	6	0.93
344	헌법	12	5	1.03	6	6	0.96
344.8	행정법	10	4	1.15	4	4	0.86
345	형법	17	7	1.05	7	6	0.81
346	상법	15	7	1.11	1	1	0.14
347	사범소송절차	24	11	2.60	13	12	2.65
347.2	민사소송법	11	5	0.73	5	5	0.62
347.6	형사소송법	6	3	0.81	2	2	0.50
348	민법	49	22	1.72	23	21	1.52
349	관례총서	0	0	0.00	0	0	0.00
600	기술과학	1	0	0.64	0	0	0.00
계		227	100		107	100	

KERIS 가입 회원기관의 경우, 총 227권을 대출하였다. 제법 분야 54건(24%)과 민법 분야 49건(22%), 사법소송절차 분야 24건(11%)의 대출 비율이 높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총 107권을 대출하였다. 그리고 KERIS 가입 회원기관 상위 대출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법 분야 30건(28%)과 민법 분야 23건(21%), 사법소송절차 분야 13건(12%) 순으로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장서 수 대비 대출 수를 살펴보면 사법소송절차 분야가 KERIS 가입 회원기관 이용계수 2.6,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계수 2.6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민법 분야로 KERIS 가입 회원기관 이용계수 1.72,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계수 1.52였으며, 제법 분야가 각각 1.31, 1.37이었다. 이용계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판례총서 분야로 모두 이용계수가 0이었다. 이용계수가 1보다 크면 장서의 이용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 KERIS 가입 회원은 8개 분야가 1보다 컸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는 3개 분야만 1보다 이용계수가 컸다. KERIS 가입 회원은 법학계에 중사하

는 법률전문가들로 실무계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해 법학 분야 전반의 책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4.1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이용자층 확보

〈표 13〉과 같이 헌법재판소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의 경우 열람 및 복사만 가능하고 대출이 불가하다.

이처럼 가장 다양한 법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이 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큰 장점이고, 박승진과 노영희(2018)의 연구에서 78.3%의 일반 이용자들이 도서대출 서비스 실시하면 이용하겠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마루는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2022년 법마루 이용 현황은 〈표 14〉와 같은데, 일 평

〈표 13〉 유관기관 도서관 이용 방법

구분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회도서관
이용 대상	2층 일반자료실 - 이용 대상: 누구나 이용 가능 - 이용 절차: 방문중 수령 후 이용 3층 법률자료실 - 이용 대상: 법학연구 등 법률자료 연구 목적이 있는 경우 - 이용 절차: 3층 법률자료실 안내데스크에 문의	-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 -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 소장 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초등학생 제외)
이용 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 평일(월~금) 09:00 ~ 21:00 (열람신청 시간: 09:00 ~ 17:00) - 주말 09:00 ~ 17:00 (열람신청 시간: 09:00 ~ 16:00)
대출	- 대출불가	- 대출불가

출처: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court.go.kr/#/about/guide/conlaw> [cited 2023. 9. 8.]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anet.go.kr/libaryuseinfo/libUseUserTimeView.do> [cited 2023. 9. 8.]

〈표 14〉 2022년 법마루 이용 현황

(단위: 명, 권, %)

방문자 수	대출자 수	대출 권수	1인당 대출 권수	장서 수	장서 수대비 대출 비율
35,428	663	5,601	8.45	212,608	0.26

균 방문자 수는 97명인데 비해서 일 평균 대출자 수는 1.8명에 불과하였다.

윤희윤(2020)은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출 서비스라고 하였는데, 법마루의 경우는 이용자들이 대출을 위해 법원도서관을 방문한다기보다 법마루 열람 공간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람 공간의 개인 독서실화를 탈피하고 대국민 이용자들이 법마루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법마루의 서비스 방향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률자료가 필요한 일반 국민이나 법률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법원도서관 대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이용자층에 맞는 법원도서관만의 특화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출 통계자료를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이용자 맞춤형 자료추천 서비스 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용(2012)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하였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은 법원도서관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 유사한 그룹의 대출 패턴 분석을 통한 도서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학 지식을 갖추었으나 세부 전공 분

야를 가진 법학자나 전문 분야를 가진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 집단은 행렬분해 방법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의 신간도서 메일링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4.2 법률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

법원도서관 법마루는 국민의 법률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국민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실제 대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용자들은 법률서보다는 일반서 위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서의 장서 비중은 27%에 불과하였지만 대출 비중은 83%에 육박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Pareto는 대부분(80%)의 결과는 일부(20%)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80/20 법칙(80/20 Rule)'을 발견하였는데, 법마루의 대출행태도 이 법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법률전문 국가도서관임에도 법률서가 아닌 일반서가 핵심 장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일반서 위주로 대출하다 보니 장서 수 대비 대출 비율이 0.26밖에 되지 않았다.

박희진과 박성재(2023)는 대출 권수는 도서관 운영평가의 중요한 지표로써 대출 권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민은 사서의 책무 중 하나라고도 하였다. 이용자들이 법마루를 찾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법률서의 이용과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법마루를 어떻게 법률 전문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법마루의 대출 정책은 일반 이용자나 법률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 법률전문가들이 일산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하고 법마루에 오더라도 3권밖에 대출하지 못하고 대출 기한도 최대 20일이다. 서울 시내 입학정원 기준 상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 대출 정책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대출 책수는 40권~100권, 대출 기간은 90~180일로 법마루의 대출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이용 패턴 분석 결과와 이용자 정보요구를 반영하여 대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KERIS 가입 회원기관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국내 법률서뿐 아니라 외국 법률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상호대출 현황 분석 결과, KERIS 가입 회원기관의 국내 법률서 대출은 140권으로 62%였으며 외국 법률서 대출은 87권 38%로 외국 법률서 대출 비

중이 높았다. 현재 법마루는 외국 법률도서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외국 법률서 대출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온라인서비스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AI를 활용한 ICT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도서관 역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전통적인 대출의 개념은 도서관에 직접 와서 실물 도서를 빌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법마루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디지털도서관을 통한 소장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출의 개념을 온라인 대출까지 확장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법마루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Web DB나 원문 DB, 전자책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법률자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마루 이용 대상은 전 국민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 분야의 정보 공유 및 이용을

<표 15> 서울 시내 법학전문도서관 대출 정책

(단위: 명, 권, 일)

구분	입학정원	이용자	대출 책수	대출 기간	비고 및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150	교수	40	90	중앙도서관은 120권까지 가능 https://lib.snu.ac.kr/about/libraries/law-library/1-policy/ [cited 2023. 9. 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120	교원	100	90	중앙도서관과 동일한 정책 https://library.yonsei.ac.kr/local/html/lawGuide [cited 2023. 9. 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120	교원	60	90	중앙도서관과 동일한 정책 https://library.korea.ac.kr/datause/search-loan-return/loan/ [cited 2023. 9. 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120	교원	100	180	중앙도서관과 동일한 정책 https://lib.skku.edu/#/service/circulation [cited 2023. 9. 8.]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도서관이나 헌법재판소도서관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들과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유관 기관들까지도 확장하여 학술 세미나 등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 법마루는 국민의 법률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대국민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2022년 법마루 방문자 수는 35,428명, 대출자 수는 663명으로 이용자들은 대출보다는 열람 공간을 더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소장 장서의 27%에 해당하는 일반서가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대출이 활발한 분야도 문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실제 이용목적과 법마루의 서비스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서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마루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의 홍보 강화 및 특화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서추천, 신간도서 메일링 서비스 등 이용자 맞춤형 자료추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 구분과 상관없이

법마루의 총대출 권수는 3권이고, 대출 기한은 10일이었다. 이는 서울 시내 법학전문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권수가 적고 대출 기한이 짧은 것으로 법마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대출 규정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학 분야의 여러 관계 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직접 법마루를 방문하여 대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의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후속 연구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법원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법원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CLIMS)과 연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처럼 성별, 연령, 거주지별 분석 등 세분화된 이용 패턴을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2022년 도서대출 데이터만 분석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계속 추이 분석을 위한 중단적 연구를 통해 법마루만의 차별화된 장서 개발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마루의 장서 구성은 특히 법률서와 일반서의 장서 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서구성의 균형 및 체계성과 망라성,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장된 장서의 분야별 장서 통계와 이용자 대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의 대국민 서비스는 초기 단계로 공공도서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법률도서관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계는 계속된 연구지원을 통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노영희 (2018). 법원도서관의 대국민서비스 개방에 따른 이용자요구 분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215-246. <https://doi.org/10.4275/KSLIS.2018.52.3.215>
- 김선애 (2013). 대학도서관의 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A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대출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15-13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115>
- 김성훈, 노윤주, 김미령 (2021). 연관성분석 기반 도서추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287-311. <https://doi.org/10.16981/kliss.52.3.202109.287>
- 김용 (2012). Apriori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화 정보 추천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283-308.
- 김태영, 백지연, 오효정 (2018). 빅데이터 로그 기반 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현황 분석: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57-388.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357>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박희진, 박성재 (2023).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도서관 대출권수의 종단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45-68.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045>
- 법원도서관 (2019). 법원도서관 30년사. 경기: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967호.
- 법원도서관 법마루 소장 도서 관외 대출에 관한 지침. 제227호.
- 법원도서관 법마루 이용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지침. 제243호.
- 법원도서관 열람 등 이용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 내규 28조.
- 법원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 (2011). 도서 통계. 출처: 법원도서관 내부시스템.
- 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 심지영 (2021). 도서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8(2), 173-199.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173>
- 안주연, 김성희 (2019). 법학도서관 장서의 대출현황 분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S 대학 법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255-27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4.255>
- 양지안 (2017). 대학도서관 대출데이터분석을 통한 장서 이용행태 및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63-293.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263>
- 오지은, 정동열 (2015).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장서평가 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1), 43-62.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043>

- 유경중, 박일중 (2008). 대학도서관의 대출기록 분석을 통한 이용조사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1), 109-129.
- 윤희운 (2020).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규정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349-372.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349>
- 임정훈, 조창제, 김종현 (2022). 연규칙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도서추천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9(3), 1-22.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001>
-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내규 제346호.
- 허선, 정연경 (2014). 대출기록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구: 강서·양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187-20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4.187>
- 홍연경, 전서영, 최재영, 양희운, 한채은, 주영준 (2021). 대출 기록에 기초한 대학 도서관 도서 개인화 추천시스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2), 113-127.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113>
- Bonn, G. S. (1974). Evaluation of the collection. *Library Trends*, 22(3), 265-304.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hn, Jooyeon & Kim, Seonghee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and usage of law library collection: a case study of law library in S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255-27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4.255>
- Court libr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011). Court library statistics. Available: Internal system for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Court organization Act. No. 18633.
- Guidelines for Borrowing Books from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s Collection outside of the Library. No. 243.
- Guidelines for use and compliance with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No. 227.
- Heo, Sun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public libraries' user behaviors based upon circulation data in Gangseo and Yangcheon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 187-20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4.187>
- Hong, Yeonkyoung, Jeon, Seoyoung, Choi, Jaeyoung, Yang, Heeyoon, Han, Chaeun, & Zhu, Yongjun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ersonalized book recommendation

- systems in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individual loan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2), 113-127.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113>
- Internal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ecial reading room for judgment information. No. 346.
- Internal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the court library. No. 28.
- Kim, Seonghun, Roh, Yoonju, & Kim, Miryung (2021). A narrative study on user satisfaction of book recommendation service based on associ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52(3), 287-311.
<https://doi.org/10.16981/kliss.52.3.202109.287>
- Kim, Sun-Ae (2013). A study on the collection use of an academic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statistics of the a-academ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115-13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115>
- Kim, Taeyoung, Baek, Jiyeon, & Oh, Hyo-Jung (2018). An analysis of library user and circulation status based on bigdata logs: a case study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9(2), 357-388.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357>
- Kim, Yong (2012). A study 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ersonalized information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apriori algorith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283-308.
- Korea University library (2023). General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library web site.
Available: <https://library.korea.ac.kr/datause/search-loan-return/loan>
- Kwak, Seungjin & Noh, Younghee (2018). A study on user needs for public access to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215-246.
<https://doi.org/10.4275/KSLIS.2018.52.3.215>
- Libraries Act. No. 19592.
- Lim, Jeonghoon, Cho, changje, & Kim, Jongheon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library book recommendation system using the association ru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3), 1-22.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001>
- Oh, Jieun & Jeong, Dongyoul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collection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 Information Management, 32(1), 43-62.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043>
- Park, Heejin & Park, Sungjae (2023).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number of checked-out books using latent growth model and growth mixture modeling.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45-68.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045>
- Rules for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Supreme Court Rule No. 2967.
- Shim, Jiyong (2021). Identifying information needs of public library users based on circulation data: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2), 173-199.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173>
-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19). 30-year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Gyeonggi: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Yang, Jiann (2017). A study on use behaviors of books through circulation data analysis in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8(2), 263-293.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263>
- Yoo, Kyeongjong & Park, Iljong (2008). A study about the use survey by the circulation record analysis of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1), 109-129.
- Yoon, Heeyoon (2020). A study on the book circulation rules of public librar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51(1), 349-372.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349>